

# '안 불출마 협박' 힘겨루기 ... 대선판 초반부터 후끈 달아올라



**본격 대선 레이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레이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9일 경남 김해시 상동면 롯데하이마트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국내 첫 독립구단인 고양원더스 유니폼을 선물 받은 뒤 웃음을 짓고 있다(왼쪽). 이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세종·충남 순회경선에서 1위를 하며 10승을 달린 문재인 경선후보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오른쪽). 가운데는 법아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연합뉴스

### 진실 규명 어려워 승패는 여론이 결정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검증 작업 전방 민주 후보 경선 결과·단일화 최대 변수

12월 대선이 10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9일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는 결정됐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은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야권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고, 박근혜 후보와 법아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서 대선정국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의 불출마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법아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서 대선정국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안철수 후보의 불출마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법아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하면서 대선정국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행사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또 교과위는 정수 장학회를, 법사위는 박 후보의 2007년 대선 경선 자금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BW)를 발행한 뒤 1년 만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300억여원의 평가액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안 원장의 부인과 친동생이 임원으로 관여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 후보=민주당의 순회경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어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문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고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누가 되든 순회경선이나 결선투표를 거쳐 민주당 후보가 된다 해도 12월 대선까지 완주할 최종 주자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안 원장과 단일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후보, 안 원장의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해 안 원장과 단일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달 내 결정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 민주당 지지세력은 안 원장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 안철수 추석 전에 출마선언

#### 정치권 17일 이후 전망

야권의 유력한 장외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안 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불출마 협박'을 폭로한 이후, 그의 대선출마는 기정사실화 되는 흐름이다. 안 원장의 출마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굳이 금 변호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초강경 대응을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불출마 협박' 폭로와 뒤이은 여야 공방전으로 안 원장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유력

한 대항마로 자리 잡는 '효과'를 봤다. 나아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향후 야권단일화를 놓고 기선을 제압한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 측이 여론 향배를 살피면서 대선 민심의 변곡점인 추석 이전에 출마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출마 협박' 논란의 여진으로 이번 주 내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어수선한 분위기가 정돈된다면 오는 17일 이후로는 언제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 여부에 따라 오는 16일이나 23일 결정되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의 공조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2~3일 후에 출마 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원장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늦어도 추석 이전에 출마 선언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공조 세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출마 선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불출마 협박' 논란 ... 안철수 失보다 得 많을 듯

#### 대선판 진입 효과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 안 원장의 대선 방정식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불법사찰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민주통합당과의 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과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각종 검증 공세를 불법 사찰 프레임에 가워놓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불법 사찰 의혹이 설득력을 확보할 경우, 안 원장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안 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전세 논란이 확산되고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거수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또한, 네거티브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 점은 안 원장의 이미지를 강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 경험이 없고 온건한 이미지의 안 원장이 살벌한 정치판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원장 측은 부인하지만 새누리당과 정치권 일각에서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부정적인 관점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논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정치 공방이 계속되면 안 원장의 신선한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이번 논란은 안 원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불출마 협박 논란으로 안 원장은 사실상 대선 판에 한 발 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누군 '강건너 불구경' ?!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 9월 11일

인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홈페이지 [www.songwon.ac.kr](http://www.songwon.ac.kr)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있습니까?  
당신의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도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

열정교육

열정적인 교육으로 평생 책임지는 송원대학교  
꿈과 미래가 더욱 가까워지는 송원대학교

감동인재

평생 책임지는 사람  
평생 함께하는 사람  
당신 곁에는 송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책임취업

열정교육, 감동인재, 책임취업  
**광주송원대학교!**

수·시·모·집

1차 : 2012. 9. 6(목) ~ 9.11(화)  
2차 : 2012.11.13(화) ~ 11.16(금)

**송원대학교**  
SONGWON UNIVERSITY

503-742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번지 입학상담 TEL. 062)360-5778~5780